

# 치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어느덧 한국 불교의 기수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는 마음도 더불어 훈훈해지는 자리라 여겨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창립 50주년기념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생 청년 불자 포교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임하는 51년차 박지연 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갈 52년차 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처럼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희망의 한 해를 힘차게 이끌어가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1963년에 창립한 대불련은 지난 50여년 동안 불자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생은 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2600여년 불교의 역사도 청년 싯다르타의 고민과 도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 싯다르타가 중생의 삶과 죽음, 아픔과 기쁨에 대해 의혹을 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의혹을 기존의 낡은 사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 자리의 인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청년 싯다르타의 고민을 안고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한다면 언제나 빛나는 청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학생 불자 여러분의 한 번의 사색과 한 번의 고민, 한 번의 도전이 한국불교의 빛나는 100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51년차의 활동을 원만 회향하는 박지연 회장과 최현정, 박선연 중앙집행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롭게 취임하는 신임회장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중심에 항상 우뚝 서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일선의 대불련 지부장과 지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불자, 그리고 홍지연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단 등 모든 실무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